

종합·해설



광주·전남 지역구 여성의원 나올까

여야 여성 후보 지역구 할당 가산점 부여
있따라 출사표... 10년만에 국회 입성 관심

19대 국회에서 광주·전남을 지역구로 둔 여성 국회의원을 볼 수 있을까. 여야가 4·11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 의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여성 정치인들이 잇따라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 더 잘할 수 있다"고 민주통합당 후보로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강진·영암·장흥의 국령에 예비후보는 "민주진보개혁세력의 집권플랜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부터 시작된다"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최대의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 북부 오로라소 25일 노르웨이 북부의 항구도시인 토롬쇠(Tromsø)의 밤하늘 위로 북극광(오로라)의 장관이 펼쳐지고 있다. 북반구 고위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북극광은 태양폭풍으로 발생한 자기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부딪치면서 나타난다. /연합뉴스

한나라 인물난?... 공심위 인선 지지부진

한나라당이 4·11 총선 후보자를 선출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실 연휴 직후 공심위를 구성,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인물난 등으로 인해 공심위 출범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4·11 총선 후보자를 선출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실 연휴 직후 공심위를 구성,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인물난 등으로 인해 공심위 출범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4월 총선앞으로

기획단장에 이미경 의원
15명내 공심위 이달 출범



이미경 의원

민주통합당이 지난주 임종석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마친데 이어 25일에는 4인의 이미경 의원을 총선기획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이 기획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총장은 통합세력 간의 화학적 결합과 온·오프라인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단은 당의 실무자 위주로 채우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해 가급적 이달 안에 출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통합진보도 총선 체제
이익업기획단장 선임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 준비체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25일 오후 첫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어 세부 인선 및 전략 수립에 나섰다.

Light and Peace (빛과 평안) - Kim Jung-do.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character holding a sign that says '福망이... 망이...' (Blessings... misfortune...) and another sign that says '2012'.

POSDAG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eatures various travel packages for 2012, inclu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lights to destinations like China, Japan, Southeast Asia, Europe, and Hawaii.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